

buddhanews.com

# 나를 생산시켜서 이끌어가는 나의 선장을 믿으세요

## 25면에서 계속

공부 영 못 해. 문 없는 문으로 그냥 넘어설 줄 알아야 그게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려면 지금 물질과학으로 모든 거 하고 가는 동시에, 이 도리를 전체 머리끝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야 다 몽땅, 그 뿌리에만 모두 붙어 있다. '내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진짜로 믿고 거기에서 자꾸 그 입력을 하는 것이 좋아. 앞서의 입력은 자꾸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물도 고여 있는 물은 썩지만 자꾸 새 물이 들어가는 물은 썩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2남):** 스님, 만나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신도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단 것 아니라고 우리 신도 중에서, 대부분이 보살입니다. 보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처사 신도하고 보살 신도가 한 가정에서 서로 살림살이를 해가면서, 보살님은 열심히 한마음 공부하고 있는데 처사님이 오히려 그 공부에 방해가 되고 또 이 한마음 공부로 인해가지고 가정에서 문제까지 생기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항상 이 전진줄이 서로 가설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선 부단히 가설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거부하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제가 보고 이걸 좀 큰스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다스리고 지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큰스님:**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순리적으로, 어떠한 막는 개체가 있을 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데에 큰 돌이 있어서 곧장 갈 수가 없다 할 땐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내가 선원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러다보면 나오지 않고도 생활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그대로 그렇게 놓고 공부하면서 '그 사람도 역시 나와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마음이 밝아지게끔, 지혜가 생기게끔 하는 것도 바로 너뿐이야.' 하고 그것도 놓아가면서 부드럽게 해주면서 부드러운 행동을 해주면서 그 상대방 탓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이 처음에 볼 땐 자기같이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도감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다보면 자연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래도 어딘가가 앞서의 그런 거를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자연적으로 한마음으로서 공부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야지 '왜 못 나가게 하느냐?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공부를 당신은 안 하고 뭐 어찌니 저찌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똑 같습니다.

**질문자(2남):** 그래서 제가 같이 열차를 타고 올

라오면서 보니까 열차칸에서 서로 돌이 싸우고 또 전철 타고 오면서 전철칸에서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가니까 그때는 안 싸우는데...

**큰스님:** 아니, 같이 나오시기는 하는데요?

**질문자(2남):** 오늘 제가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난 아주 안 나오시면서 그런다고, 아이, 나오시면서 그런 거는, 하하하. 지금 안 믿어 봤자야, 안 믿어 봤자 자기를 무시하는 거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왜 여러분이 다 자신이 귀 어찌고 어찌고 그러죠? '자신'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일러드리기 쉽게 말을 하자면 '자'는 지금 현재의 자기고, '신'은 자기의 그 원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불심이, 그 불(佛)이 불이 아니라 자신이 라는 말입니다. 자신!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자가 어딴습니까? 자기 신이 자기 '부(父)'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 살 때 살던 자기,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렵합니까?

대성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생산시켜서 이끌어가는 나의 선장을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생명의 근본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내는 것과 몸이 움직여야 하는 것과 모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게끔 움직여라니까 그냥 전체를 한데 묶어서 주인공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판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부터 알아야 우주와 근본 섭리가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대 성인들이 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이랬잖아. 그러니 바로 '자'는 '신'에게 나라. '자신'이라고 한다면 자는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종으로 알아라. 자기 몸뚱이는 종으로 알아라, 이런 거야. 그 왜냐? 지금 이치를 생각을 한대도 몸뚱이 속에 많은 중생들 생명들이 들어있는데 이 곁에 물 한 곁을 당신이 목이 마르다 할 때 마신다 해도 당신이 먹는 게 아니야. 당신이 달리는 게 아니야. 또, 당신 속에 있는 생명들이 바로 그 몸을 달라고 목마르다고 하기 때문에 그 곁 알아채고선 바로 물을 먹여주는 거지. 그러니

나죠? 꽃 심으면 꽃 이파리가 나죠. 그래서 애당초에 지수화풍이 그것이 한데 합쳐서 비비고 돌아갈 때, 암흑세계에서 그게 돌아갈 때 그 불이 원기가 생겨가지고 생명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애초에 생긴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이렇게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종자가 생겨서 자기의 그 사는 방식대로 풀려서 그게 진화돼서 자꾸 오는데, 종자를 심어서 바로 종자가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서 또 이파리가 생기고, 그 이파리 속에 또 종자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 종자가 어디 갑니까? 그냥 종자대로죠.

그래서 종자를 변경을 시키려니까 무가 너무, 이걸 하나보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가 너무 공다리만 나오니까 무가 많이 적어, 그래서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그 무를 갖다 뽑아내지를 않고 그냥 그 이파리만 자르곤선 전부 거르다가 덮어 놔더라 말입니다. 덮어놔가지고 그 이듬해 썩어서 씨가 난 거를 받아서 한 해를 묵혀가지고 씨를 받아서 심으니까, 공다리가 나지 않고 배기무우로 그냥 알만 곱게 나오고 이 공다리가 나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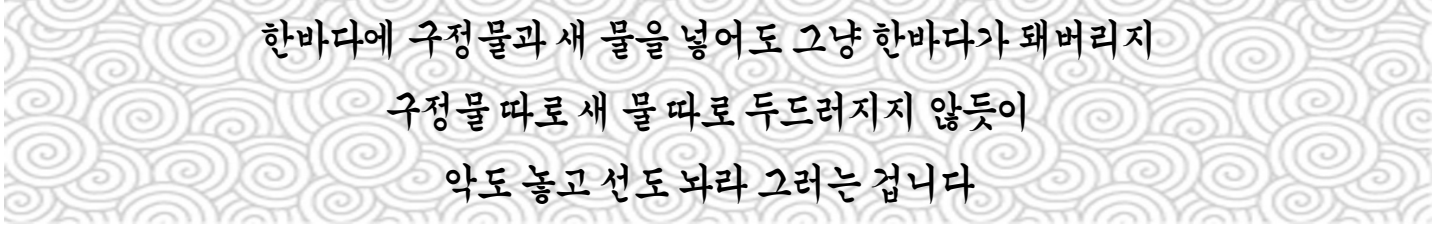
렇게 해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듯이, 꿈에 보이는 거는 좀 바뀌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꿈 그대로 보고는 힘들겁니다. 그대로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큰 용을 봤다 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 나가는 데에 그 아주 활력이 대단하게, 크게 활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용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이 꿈에 여의주를 물었다 이럴 때는, 본래의 그 사람이 살 때 많은 공을 뒤아서 그 공덕을 받아서 그 공덕 안에 여의주를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이 움직여갈 수 있다. 자유스럽게 무(無)의 세계나 유(有)의 세계를 마음대로 마음으로 넘나들면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름이 빛날 수 있다 이런 거를 표시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큰 배를 얻었다, 먹는 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평소에 살 때 어떠한 깨침도 주지 않고, 뭐 원한도 사지 않고, 뭐 동물들에게도 원한을 사지 않고 아주 온순하게 이 세상을 닦은 그러한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보는 것도, 공자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공자님 어머니가 6년을 좋은 아들을 달라고 빌었을 때 6년을 다녀도 영 태기가 들어설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보니 너무나 그 기간이 길어서 아주 그냥 지쳤죠. 그래서 그 해에는 안 가고 있었는데 꿈에서 하신 말씀이 '애야,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영령을 영령들이 들어오는 대로 아무리 끌라도 그런 좋은 영령들을 고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끌라났으니까 빨리 오너라.' 이래서 7년 되던 해에 거길 갔단 말입니다. 갔다 와가지곤 바로 태기가 있어서 낳은 그분이 공자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태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을 오직 그렇게 비우면서도 그 형상도 좋게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태교의 이치, 성격도 모든 것을 다 이롭게 또는 지혜롭게 물리가 터진 그러한 마음을 태교를 위해서 자꾸자꾸 먹게끔, 거기다가 맡겨놓으면 그게 다 같이 한마음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신을 할 땐데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아들이고 딸이고 낳기만 하면 수사가 아니다. 좋은 영령들을 갖다가 인연을 삼아야지 그렇게 좋은 영령이 아니라면 항상 부딪치고 싸우고 그렇게 되니까 좋은 영령으로 그 인연을 맺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소리예요. 꿈을 어떻게 꿔든지 그거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 위 법문은 1995년 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3남):** 저는 이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남이 당신은 "선은 뭐고 악이 뭐냐?"고 물어온다면 선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상대와 내가 동시에 좋은 거고 또 내가 괴롭고 손해가 보더라도 상대가 좋은 거면 그걸 선이라고 보고, 악은 그와 반대로 상대와 내가 나쁘고 내가 좋고 이득이 되더라도 상대가 나쁘면 그건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별심이 없어졌어요. 지금 누가 나보고 당신은 선이 뭐고 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비추어서 큰스님께서 선도 놓고 악도 놓으라고 그랬는데 뭘 놓으라고 그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아주 간략하게 말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믿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응용해서 얘기하죠. '자(子)'는 '주(主)'에게 모든 것을 보라 이런 겁니다. 주님은 바로 주처에 (가슴을 짚어 보시며) 주님이 있지 주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불가에서 불성이다 부처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평소엔 말을 할 때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 출현을 안 했더라도 무효지, '주'가 어딴는지 부처님이 어딴지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세상도 알았고 상

까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이지 제각기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야. 같이 더불어 주(主)란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자는 주에게 보아야지 않아! 맡겨야지.

다 보라 그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기에 불을 켜려면 이쪽 줄과 이쪽 줄을 얽면, 이게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라 할지라도 이 양면을 다 한데 붙여놓으면 (양 주먹을 서로 붙여 보시고) 한 줄이 돼버려야 불이 들어올 수 있지? 응.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놓고 선도 보라 그러는 건, 한데 합치면 그냥 한바다에 구정물과 새 물을 넣어도 그냥 한바다가 돼버리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더러운 물 따로 두드러지고 새 물 따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거야.

**질문자(4남):** 저는 그 태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태몽을 꾸면 뭘 소를 가졌다는니, 뭘 사람을 안아 왔다는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부모의 성품을 닮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생의 성품이나, 자기의 그 부모의 성품이 양면에서 어떻게 해서 닮을 수가 있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아니, 허허허. 무지 심으면 무 이파리가

않는 종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거와 같이 사람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로이 바꾸고 새로이 종자를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종자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네? 우리 마음으로써, 이 물질로써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마음으로써 바꾸어서 물질로 그렇게 바꾸어서 나오게끔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갑니까?

**질문자(4남):** 태몽에 대해서요. 개를 선물로 받은 태몽을 꾸었다면 그 개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개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큰스님:** 예를 들어서 지역 지역이 있듯이 물에서 생명체가 공부를 해서 인간으로 환생을 한다면, 즉 말하자면 물에서 사는 것이 보이는 그 태몽으로, 물에서 나와서 보이는 이치가 있고요, 꿈에, 또 산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는 즉 산에서 보이고요. 그거는 어떠한 물체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예요. 뱀으로 보였다고 하면 뱀으로 보지 말고 용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그 곁 용으로 보였다고 해서, 그거는 글자 없는 표시인데. 옛날에 글자 모르는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통기를 하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관을 그려놓고 말입니다. 이

## 대한불교 총 화 중

종 정 이동광  
부 종 정 이정승  
총무원장 전남정

총회의장 최만재	총회부의장 기혜성, 김운산		
교육원장 이남은	포교원장 정일광	호계원장 김혜각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백만우	선원장 황해광	상별위원장 이만오	선거관리위원장 조고담
총무부장 김지산	재무부장 이지혜	사회부장 윤대암	호법부장 박정덕
조직부장 이지우	교무부장 이해오	감찰부장 김일봉	포교부장 박지혁
포교기획부장 전신오	문화관리부장 문보현	문화부장 박보광	호계부장 박지광
서울(북)제1교구총무원장 이해인	서울(북)제2교구총무원장 박현오	서울(남)제3교구총무원장 김병능	
경기(성남)총무원장 정법연	경기(서부)총무원장 김혜암	대전총무원장 윤법전	
충청총무원장 김법현	경북총무원장 정일광	울산교구총무원장 백만우	
경남서부교구총무원장 김만월	경남중부교구총무원장 박심공	부산총무원장 최만재	
강원제1교구총무원장 정혜산	강원제2교구총무원장 허승호	광주, 전남총무원장 김현산	
제주총무원장 김정해	전북총무원장 이기중		

■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본지 764호(1월1일자) A11면에 게재된 '대한불교총화중' 축하 광고 임원명단에서 '조사부장 이원철, 교육부장 최일광'은 이미 탈종하신 스님으로서 총화중 중도가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헤일

원로의장 만월	원로위원 도명 오성 진관 각성		
총회의장 덕산			
포교원장 무제	행정원장 청명	대외협력원장 지운	복지원장 헤득
기획원장 도도	특임원장 무심	무술원장 풍운	의전원장 헤도
총무원부원장 정호	총무원부원장 명진	교육원부원장 무변	문화원부원장 헤인
서울총무원장 무비	경기총무원장 도법	대구총무원장 성련	강원총무원장 삼광
충청총무원장 정화	전남총무원장 문정		
규정부장 도천	사회부장 홍일	공보부장 보혜	복지부장 행적
기록부장 정연	행사부장 대도	의전부장 도원	포교부장 천약
이외 총도일동			
법사 법안,무계	사무국장 문광	고문 양태창 (KNB방송사장)	
자문위원 추당(화가)	구한경 권중헌 손은주 만송(기자)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2동 1928-13 (1층) 전화 (直) 0502-666-5000 / 팩스 053) 655-3222